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대응*

김항섭(한신대학교)**

- I. 서론
- II.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종교적 상황
- III. 경제 위기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 주교단을 중심으로
- IV. 가톨릭교회의 대응: 까리따스를 중심으로
- V. 결론

I. 서론

이 글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교회의 대응”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2차년도 과제이다. 1차년도에는 브라질의 가톨릭교회가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앞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았고(김항섭 2003 참조), 이 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가톨릭교회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대응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사회와 가톨릭교회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의 가톨릭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BM2085).

** Hang-Seob Kim(Han Shin University), “Iglesia Católica Argentina al frente del Reajuste Neoliberal.”

회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최근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나 부작용에 대하여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효과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이나 신뢰도, 또는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입지 등에 일정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를 다룬 연구들은 통사적인 접근이든, 특정 주제를 다룬 저작이든, 시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19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까지로 국한되어 있다.¹⁾ 90년대 이후의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를 다룬 몇몇 연구들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계종교사회학자인 포르투나또 말리마치(Fortunato Mallimaci)의 연구이다. 그는 90년대 이후 가톨릭교회 안팎의 변화에 따라 교회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Mallimaci 1997).

후안 에스끼벨(Juan Esquivel)은 주교들의 사회적 기원과 교회 경력을 중심으로 주교들의 사회의식을 변화를 추적하고 20세기 말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에 제기되는 딜레마를 다룬다(Esquivel 1999; 2000). 말리마치와 에스끼벨은 다른 여러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아르

1) 예를 들어, 90년대 이후에 출간된 저작을 중심으로 보면,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교회 전체를 다룬 책으로는 Enrique Dusel(ed.), *The Church in Latin America: 1492-1992* (New York: Orbis Books, 1992), Guillermo Cook, *New Face of the Church in Latin America* (New York: Orbis Books, 1994) 등이 있다. 남미의 남쪽 지역 국가들(이른바 “Cono Sur”)의 가톨릭교회를 다룬 책으로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교회사 연구소인 CEHILA에서 펴낸 *Historia de la Iglesia en el Cono Sur: Argentina, Chile, Paragua y Uruguay* (Salamanca: Sígueme, 1994)가 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를 통사적으로 다룬 책으로는 역시 CEHILA에서 펴낸 *500 Años de Cristianismo en Argentina* (Buenos Aires: Centro Nueva Tierra, 1992), 정복 시대부터 민정이양 이전까지 아르헨티나의 교회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Roberto Di Stefano y Loris Zanatta, *Historia de la Iglesia Argentina* (Buenos Aires: Ed. Grijalbo Mondadori 2000) 등이 있다. 특정 주제를 다룬 책으로는 Lila Ciamari, *Perón y la Iglesia Católica: Religión, Estado y Sociedad en la Argentina* (1943-1955) (Buenos Aires: Ariel, 1995), J. P. Martín, *Movimiento de Sacerdotes para el Tercer Mundo: Un Debate Argentino* (Buenos Aires: Guadalupe, 1992), Loris Zanatta, *Del Estado Liberal a la Nación Católica* (Bologna: Tese de Doutorado, 1992) 등이 있다.

헨티나의 정치와 종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Mallimaci et al. 2000). 또 다른 종교사회학자인 아베라르도 호르헤 소네이라는 주로 성령쇄신운동에 초점을 맞춘다(Soneira 1998; 2000). 모니카 엘리사베쓰 포라(Mónica Elizabeth Fora)는 라플라타(La Plata)라는 도시 지역의 가톨릭 청소년들이 가톨릭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 그리고 이 정체성이 갖는 특성들을 면접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다(Fora 1999).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종교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연구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대로 종교와 정치 사회 또는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제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경제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과 활동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우선 마리아 알리시아 구띠에레스(María Alicia Gutiérrez)의 논문(Gutiérrez 1998)과 앞서 언급한 말리마치의 두 개의 다른 논문들(Mallimaci 1998; 미 발표논문)을 들 수 있다.

말리마치는 이 논문들에서, 가톨릭교회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복지국가의 해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대응하면서 자기 변신을 꾀하는지 살피고 있다. 그는 가톨릭교회가 고유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가지고 이 상황에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주된 비판자로 변신하고, 그럼으로써 과거에 군사정권과의 유착으로 상실한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그와 동시에 교회의 민중 사목 부문은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 있어 삶의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띠에레스는 민정 이양부터 90년대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전략과 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경제 문제와 관련한 가톨릭교회의 태도 변화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가 가톨릭교회의 충분한 자기비판에 의해 토대 지워지지 않았고, 따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또 다른 전략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관심사

인 교육, 성, 가정, 낙태 등의 문제에 이르러 일정한 충돌이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논문들은 저자들 자신이 언급하다시피 시론적인 성격의 글이고, 따라서 그들의 가설을 충분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가설 자체가 체계적이거나 정교한 형태로 다듬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이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 즉 가톨릭교회가 90년대 경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해 보고, 특히 실천적 차원에서의 변화에까지 논의를 확산하고자 한다. 실천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사회 구호 또는 복지망인 까리따스(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따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교회 외적 도전으로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3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종교 일반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종교적 지형 안에서 가톨릭교회에 제기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경제 위기라는 외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가톨릭교회의 내적 조건이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과 3장의 기존의 연구를 분석,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다.

4장에서는 이러한 내적 조건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라는 외적 도전에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가톨릭교회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나 주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톨릭교회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가톨릭 주교회의가 각종 문헌에 내재해 있는 실천적 방향이나 지침들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러한 방향이나 지침들에 입각해 어떤 실천들이 이뤄졌는지는 가톨릭교회의 사회 구호 및 복지 활동을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 까리따스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 이러한 인식과 대응이

갖는 특성이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나 과제들을 살펴 볼 것이다.

4장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 교회 문헌들 외에는 언론 보도,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최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린(*Clarín*)’에 보도된 기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연도는 인터넷 신문 검색이 가능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로 할 것이다.²⁾

II.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종교적 상황

II.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 위기

1930년 호세 펠릭스 우리부루(José Felix Uriburu)가 첫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0여년이 넘게 아르헨티나를 지배했던 군사 독재는 198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 1983-1989)이 당선되고 그 해 12월 대통령 취임함에 따라 종식되고 이후 민주화 과정이 진행된다. 알폰신은 세 차례에 걸쳐 구성된 군사평의회 구성원들을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군부 독재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군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군사 쿠데타 기도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군사 정부로부터 344%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 산업 활동의 위축, 마이너스 경제 성장, 45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등 거의 절망적인 경제를 이어받은 알폰신은 초기에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나,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1984년 627%에서 1985년 1000%로 널뛰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안 비탈 소우루일레(Juan Vital Sourruille) 재무장관은 1985년 6월 경제 안정화 정책을 골자로 하는 빨란 아우스트랄(Plan Austral) 발표한다. 그 주된 내용은 보수적인 통화 정책과 물가와 임금 동결 정책이다(Rock 2002, 62-63).

2) <http://www.clarin.com/>

이러한 안정화 정책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외채상환액, 소득 감소, 탈세 증가 등으로 나타나면서 무너지고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통화 발행과 국내 화폐의 평가 절하를 단행하나 그 결과 또 다시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 1988년 말에 다시 한 번 경제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나 역시 실패한다. 이에 따라 알폰신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 현실에 대한 더 이상의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1989년 7월 새 대통령에 당선된 까를로스 메넴(Carlos Menem, 1989-1995) 후보에게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대통령직을 넘기게 된다.

메넴은 페론니즘을 계승하는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 PJ)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당선 이후 사회경제적 정책과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즉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정책 기조를 수용하고, 전통적으로 페론주의의 적이었던 극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들(ultra-conservative liberals), 즉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국가개입주의정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중용한다. 그에 따라 페론주의의 전통적인 지지 그룹이었던 노조는 부차적인 차원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무역 장벽의 해소, 국영 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다(Rock 2002, 63).

이처럼 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는 가히 야만적이라고 할 만큼 급진적이었고, 사회적 요구나 노동자의 권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넴 정부는 이렇다 할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노동자 세력은 메넴 정권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분열되어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기업가들은 한편으로는 입각 등을 통해 지배 블록의 한 축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대표적인 야당인 급진당(Unión Cívica Radical, UCR)도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신자유주의 노선 사이

의 분과 싸움으로 메넴 정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이성형 1999, 161-163).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메넴은 1991년 도밍고 까발료(Domingo Cavallo)를 경제 장관에 임명해 더욱 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페소와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는 빨란 데 콘베르티비리닷(Plan de Convertibilidad)을 채택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하는 국가 개혁법(Ley de Reforma del Estado)을 발표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초기에는 사회 일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사회 불안, 경기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 할 수 있고, 1990년대 초반 자본들이 보다 더 높은 이윤을 좇아 서구 선진국에서 제3세계로 이동했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 크다. 더 나아가 메넴은 야당의 지지까지 이끌어 내면서, 국회로부터 비상 권력(emergency powers)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도 했다(Rock 2002, 68).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메넴은 2차 결선 투표도 치르지 않는 압도적인 승리로 재선되어 제2기 정부(1995-1999)를 구성한다. 그러나 재선을 즈음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국제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공공 적자, 외채 증가, 실업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특히 가난한 이들은 보건, 교육, 일자리 등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와 더불어 메넴 정부의 각종 부패 사실이 곳곳에서 타져 나오기 시작한다.

메넴의 10년 통치 후, 그의 정책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고, 1999년 대선에서 정당 간 연합체인 알리안사(Alianza)의 델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1999-2003)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델 라 루아 대통령은 대량 실업, 높은 외채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이어받게 되고, 부통령 알바레스(Chacho Alvarez)가 부통령직을 사임하는 등, 알리안사가 내적으로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II.2. 개신교의 성장과 종교적 다원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처럼, 아르헨티나의 종교 지형 역시 80년대에 들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보면 히메네스(Héctor A. Giménez) 목사, 콘디아(Carlos Anna Condia) 목사 등이 주도하는 복음주의 교단의 출현, 움반다(Umbanda) 등 아프리카 연원의 브라질 종교들(religiones afro-brasileñas)의 성장,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령쇄신운동(Renovación Carismática Católica)의 확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Soneira 2000, 5).

아르헨티나 개신교는 19세기에 유럽 이민들이 들어오면서 이들과 함께 유입된다. 개신교의 이러한 유입은 스페인-가톨릭 문명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문화적 전통에 일정한 균열을 의미했고, 민주화와 세속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개신교들은 적극적인 형태로 정치 영역과 시민사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40년대 이후이다(Wynarczyk 1999, 1). 당시 가톨릭교회는 우익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페론 정권(1946~1955)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표 1> 개신교의 교세 분포

교 파	교 회 수	일요 예배 참가자수
역사적-해방적 전통	7%	3%
근본주의, 성령부흥운동, 복음주의	43%	30%
오순절파, 신오순절파 교회	43%	63%
기 타	7%	4%
합 계	100%	100%

출처: Wynarczyk 1999, 7.

페론 정권은 가톨릭교회와의 이러한 우호적 관계 속에서,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이에 응답한다. 이처럼 가톨릭교회가 정권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교적 특권을 향유함에

따라,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등이 주도하는 개신교회는 정치적 독재, 성직자주의(clericalismo), 가톨릭의 종교적 독점이나 문화적 헤게모니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 과정에서 개신교 여러 교파 사이에 공통적인 정체성이나 교회일치의 노력 등이 강화되기도 했다(Wynarczyk 1999, 2).

이처럼 페론니즘에 대항하여 상대적으로 교회일치 노력을 기울였던 개신교회는 6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사회 문제와 관련한 신앙 이해와 실천 방법을 둘러싸고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인다. 먼저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파 교회는 성서적 보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에큐메니즘에 대한 거부 경향을 드러낸다. 이 교회들은 ACIERA(Alianza Cristinana de Iglesias Evangélicas de la República Argentina), CONELA(Confraternidad Evangélica Latinoamericana) 등의 기구를 통해 결집되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개신교들이 중심이 되고, 근본주의 전통과 오순절파 교회 일부가 가담하는 이 이른바 역사적-해방적 흐름이 있다. 이들은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에큐메니즘을 추구했다. 이 그룹은 FAIE(Federación Argentina de Iglesias Evangélicas), CLAI(Cosejo Latino Americano de Iglesias) 등의 기구를 중심으로 묶어졌고 WC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Wynarczyk 1999, 5). 이들은 군사정권 하에서 칠레와 우루과이 정치적 망명자들을 보호하고, 독재의 희생자들의 편에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다양한 엔지오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Wynarczyk 1999, 6).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 교단은 1967년 시작된 성령부흥운동(Movimiento de Renovacion Espiritual)과 더불어 발전한다. 같은 해 3월 대부분 목사들로 이뤄진 20-25명의 그룹이 매주 월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갖게 된다. 이 그룹은 1969년 중반에 이르면 그 회원수가 600여명으로 늘어났고, 그 주된 지도자들은 이미띠안(Jorge Himitian, Alianza Cristiana y Misionera 소속), 오르띠스(Juan Carlos Ortiz, Asambleas de Dios 소속) 목사 등이다(Swindoll, 1981).

개신교의 이러한 성령부흥운동은 가톨릭 성령쇄신운동의 초기 형

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성령부흥운동에 속한 일군의 목사 그룹은 1972년에 ‘라틴아메리카 에큐메니칼 피정’(Retiro Ecueménico Latinoamericano)을 소집해, 라틴아메리카의 12개 국가에서 가톨릭교회를 포함해 다양한 그리스도교 교파의 종교지도자들을 초대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오르띠스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oneira 2000, 4).

가톨릭의 성령쇄신운동은 이러한 아르헨티나 개신교의 경험 외에도 미국,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등 해외 가톨릭의 성령쇄신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쇄신운동은 고립되고 분산된 형태에 머물렀다(Soneira 2000, 5).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비센떼(Felicísimo Vicnete) 신부의 주도 하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중심으로 성령쇄신운동이 활성화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Soneira 2000, 5-6). 이처럼 80년대 중반 이후 성령쇄신운동이 활성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주교들의 인준을 받지 못한 채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1980년 8월에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신학위원회(Equipo Episcopal de Teología)는 성령쇄신운동에 대하여,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서를 발표한다.

그러나 1989년 8월 주교회의는 두 개의 문서를 통해 성령쇄신운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다. 먼저 「기본적인 윤곽」(Los Lineamentos Básicos)를 발표해 성령쇄신운동의 성격과 목표, 일반적인 작동원리를 규정하고, 중앙 본부(Equipo Nacional)과 지역 조직이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가를 지적한다(Comisión Permanente del Episcopado Argentino, 1989). 이어 교의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기준」(Criterios Fundamentales)을 발표한다. 이 문서에서 주교회의는 성령쇄신운동의 성과와 위험, 식별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즉 신흥 교단이 급성장하는 아르헨티나의 종교 지형의 맥락에서 성령쇄신운동이 갖는 기능이나 장점에 대해 언급한다. 즉 이러한 새로운 종교적 상황 앞에 교회는 아직 적절한 사목적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신흥교단들과 유사한 언어 - 탁월한 종교적 언어, 초

월성애의 개방, 넓은 의미에서의 치유의 힘에 대한 신뢰 등 - 를 사용하는 성령쇄신운동이 교회의 사목적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Comisión Episcopal para el Apostolado de los Laicos 1989, 10).

1993년 9월 14일 로마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는 성령쇄신운동의 국제적 모임인 국제가톨릭성령쇄신운동(Inter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Services)의 현장을 인준한다. 그에 따라 아르헨티나 교회에서도 성령쇄신운동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인준 받게 되고, 1998년경에 이르면 산 라파엘(San Rafael) 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공인된 활동을 전개한다(Soneira 2000, 12). 그러나 활동이 인준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교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68명의 교구장 중 21명(31%)이 성령쇄신운동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성령쇄신운동에 대한 지지나 지원 여부는 교구장의 이념적 성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구장들이 성령쇄신운동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적 또는 종교적 이유이기 때문이다(Soneira 2000, 12). 그리고 성령쇄신운동이 이러한 교계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쇄신운동이 제도화 과정을 통해 교회 내 조직으로 편입되었고, 행정 구조, 지역 조직, 정기 모임 등 제도적인 꼴을 갖추게 된 것과는 관련이 있다(Soneira 2000, 15).

<표 2> 아르헨티나의 종교 분포.

종 교	가톨릭	개신교	기타 종교	무종교	합 계
비 율	87.4%	8.3%	2.0%	2.3%	100%

출처 : PROLADES(Programa Latinoamericano de Estudios Sociorreligiosos/Latin American Socio-Religious Studies Program, <http://www.prolades.com>).

기준년도 : 2001년.

Ⅲ. 경제 위기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전의 네오 크리스트판닷(neo-cristandad)의 교회론이 쇠퇴하면서(Esquivel 2000, 17), 정치권력이나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이 교회론은 정치권력과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가톨릭적 윤리나 가치를 시민사회 안에 이식,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론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아람부루(Juan Carlos Aramburu), 뿌리마떼스다(Raúl Primatesta), 파라시노(Antonio Quarracino) 추기경 등의 주도 아래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주된 이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론은 무엇보다도 민정 이양 이후 군사독재 청산 과정에서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교계가 행한 부정적인 역할들이 폭로되면서 위기를 맞는다. 특히 불법적인 억압에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가톨릭 지도층들이 가담한 사실들이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으면서, 시민 사회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Esquivel 1999, 2), 그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의 위신이 크게 추락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교회는 완고하고 수직적이고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제도라는 이미지로 사회 일반에 확산되고, 그 결과 가톨릭교회가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나 시민사회에의 보다 더 광범위한 개입은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러한 불신과 비판은 단지 과거 군사독재 기간에 가톨릭교회가 범란 잘못에 대한 사회적 평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가톨릭교회가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범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내포한다.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인지하면서, 사회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권력과의 전통적인 종속적 관계를 재검토하며, 권력에 대한 보다 더 자율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교회 안팎에서 터져 나온다(Esquivel 1999, 12). 그러나 사회 일반의 문제 제기, 그리고 교회 내부의 비판적 기운에도 불구하고, 네오

끄리스탄달을 대표하는 뿌리마떼스따와 파로시노 추기경이 주교회의 의장을 맡는 1996년까지는, 교계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대략 알폰신 정부와 메넴 정부 1기와 일치한다.

민정 이양과 더불어 대통령에 취임한 알폰신은 군사 독재를 청산하면서, 사회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우선 두 가지 문제, 즉 군사 독재 하의 인권 문제와 군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알폰신 정부는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인권 단체와 군부 양쪽으로 불만과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톨릭 교계와 기본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폰신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교회는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교계는 알폰신 정부 하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민주주의가 야기한 도덕적 타락의 부산물 정도로 간주한다(Gutiérrez 1998, 8).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교육, 가정, 결혼 문제 등에 대해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알폰신 정부는 교육 개혁을 위해 전국교육대회(Congreso Pedagógico Nacional)를 소집하고, 1987년 6월 3일 이혼법(Ley del Divorcio)을 선포한다. 또한 문화 민주화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Democratización de la Cultura)을 입안한다. 가톨릭 교계는 이 정책들이 사회를 세속화하고 비종교화하려는 시도이고, 아르헨티나 문화의 가톨릭적 바탕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한다(Esquivel 1999, 12-13).

그러나 메넴이 1989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주교들은 대체적으로 새 정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시 말해 주교들은 전통적으로 페론주의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여겨왔고, 따라서 메넴 정부가 교회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정책을 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주교회의의

상임 위원회는 메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새 정부의 정당성을 확증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의무인 도덕, 성, 교육 등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회복한다(Gutiérrez 1998, 11).

메넴 정부 1기의 초반에 형성된 관계는 특히 주교회의 의장인 파라시노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 의해 주도된 반면, 군사 독재 때부터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왔던, 호르헤 노박(Jorge Novak) 주교(당시 Quilmes 교구장), 하이메 데 네바레스(Jaime De Nevares) 주교(당시 Neuquén 교구장), 미겔 헤사이네(Miguel Esteban Hesayne) 주교(당시 Río Negro 교구장) 등은 그전부터 해왔던 인권 활동에만 전념한다. 한편 이들에 비해 다소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후스토 라구나(Justo Laguna) 주교(당시 Morón 교구장)는 메넴 정권의 인권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성장과 발전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국가가 보다 더 강력하게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Gutiérrez 1998, 10-11). 라구나 주교를 비롯한 일부 주교들의 이러한 비판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다. 종교적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지배적인 종교이고, 아르헨티나 시민사회 안에 가톨릭교회만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Gutiérrez 1998, 11).

특히 정부 내에 부패가 만연하고, 가난과 실업이 증가하는 메넴 정부 1기의 후반으로 넘어 오면서, 일부 주교, 사제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교회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들이 점차 높아진다. 이는 사회적 배제(exclusión social)의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공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모든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정치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군사 독재 하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른 행태들에 대한 자아 비판적 분위기에 이러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정치권력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일부 고위 성직자들에게까지 확산된다. 고위 성직자들 사이의 이러한 분위기는 주교회의 문헌 「3천년기를

향하여(Caminando hacia el Tercer Milenio)」(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 1995)에 반영되어, 군사 독재 하에서 교회가 행한 역할에 대한 자아비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교계 내부의 지속적인 논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Esquivel 1999, 13). 결국 경제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부작용, 그리고 메넴 정부의 부패 등을 둘러싸고 가톨릭교회와 메넴 정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Esquivel 1999, 14).

그러나 이때만 하여도 메넴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보다는, 경제 정책의 사회적 결과에 국한된 비판이었다. 이에 반해 교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교육, 성, 출산, 낙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Gutiérrez 1998, 11).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도 본격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기본 틀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시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 시행의 차원에서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갖도록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년 주교회의 사회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구조조정의 결과들을 완화하려는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오스발도 무소(Osvaldo Muso) 신부는 외채 탕감에 대한 교황의 지침에 따라, 아르헨티나 외채의 재협상을 요구한다(Diario Página, 12 de junio de 1995). 또 다른 예는 1995년 주교회의 총회의 최종 문서에서 가난의 상황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망(Red de Caridad)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상응해 주교회의 사회사목위원회, 원주민위원회, 이민위원회, 까리따스,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교회의 모든 자선 단체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보다 더 효율적인 형태로 사회 구호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네오 크리스트만당을 대표하는 파라시노 추기경이 물러나고, 1996년 11월 5일 카를릭(Estancio Karlic) 추기경이 주교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비판이 이뤄진다. 이는 97년을 기점으로 사회 일반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각종 항의와 시위들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Gutiérrez 1998, 13). 새로운 의장단을 맞은 주교회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을 반영하면서, 정치권력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이후 발표되는 주교회의 문서들을 통해 사회의 다수를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카를릭 의장은 97년 9월 주교회의 74차 총회 개막미사에서, 정치권의 부패와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해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회를 이기주의적 개인의 집합소로 만드는 반문화를 낳고, 나라 전체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서 강조하는 공동선을 든다.

여기서 공동선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모든 이가 부에 참여하는 평등이고, 법과 제도에 의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정의의 구조이며, 카를릭 주교는 이것이 사회의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Karlic 1997).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지역 주교단 차원으로 확장되고, 북서부 지역 주교단이 처음으로 포문을 연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경고할 만한 수치에 이르렀다. 나아가 점증하는 실업과 사회적 불안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공공 행정의 당국자들, 기업과 전문가 집단은 공동선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사회복지단체의 관계자들은 기금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엄격하게 처신해야 한다. 사회정의, 정직, 투명성은 민주 제도를 지탱해 주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제조건이다(Obispos del Noroeste Argentino 1999).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차원에서는, 96년 말 카를릭 의장 취임 이후에 개최된 97년 73, 74차 총회, 98년 4월 75차 총회 등에서는 홍수 문제, 노인 문제 등을 다루면서 직접 언급하지 않다가, 98년 10월에 열린 76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비판한다.

우리 주교들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개 경쟁과 경제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특히 결핍, 심지어는 완전 배제의 상황은 이러한 경제 철학과 실천이 야기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 1998b, 3항).

이어 99년 4월에 열린 77차 총회는 경제 현실에 대한 분석을 보다 체계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적 불균형의 존재는 흔히 국제적 경제 모델의 부산물로 사회적 관계를 어지럽히고 악화시킨다 ... 전적으로 경제주의적인 척도의 결과로서 가난과 배제의 얼굴은 인류에게 상처를 주는 도덕적 부끄러움이다. 공중 보건, 교육, 노동와 안전과 관련한 실책에 있어, 국가는 ... 사회 안에서 자신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 자신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 1999).

결국 주교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에 반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 모델이 갖는 개인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적 경향,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의 가족의 역할의 상대화 등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고(Esquivel 1999, 15),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반복음적 현실에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가난, 질병, 실업, 차별, 불안, 불의에 대해 투쟁할 수 있고, 또 투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포기—그것은 죄이다—에 반해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하느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Karlic 1999).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논조는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벌여온 사회구호사업에 대한 일정한 자아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를 까리따스 위원장인 라파엘 레이(Rafael Rey) 주교의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어려움에 처

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은 사회구호사업이 아니라 가난 퇴치이다”라는 그의 비판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일종의 슬로건이 되었다(Gutiérrez 1998, 13).

이러한 비판적 분위기 속에서 카를릭 의장은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는 교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그러한 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회가 국가와 관련해 가졌던 기존의 특권적 지위마저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배제하는 독립적인 사회 구호 또는 복지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교육이나 성, 도덕 문제를 여전히 교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회의 가치와 이해와 상응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Mallimaci et al. 2000, 9).

그 예로 1999년 4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가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와 더불어 학생들을 참여를 골자로 하는 「공동생활규범」(Código de Convivencia)를 개정하는 정책을 입안했을 때, 주교들은 이러한 정책이 교육 공간에서 작동하는 위계적 구조를 무력화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교회는 더 나아가 모든 공립학교에 선택적으로 종교 과목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맞받아치기도 했다(*Clarín*, 2 de mayo de 1999). 또한 2000년 6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가 공포한 출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Clarín*, 16 de junio de 2000). 이처럼 사회생활의 일정한 영역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결국 따라서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태도는 일정한 주제에만 한정되고,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중적 모습은 우선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주교들 사이에 일정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

해 가톨릭교회가 사회적 배제의 경제 모델,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부재로 비판받는 메넬 정부와의 정치적 단절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정립해 왔고, 따라서 이른바 ‘자율적인 대화’(diálogo com autonomía)의 입장이 현 주교회의 안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과거의 크리스판달 모델로 복귀하려는 열망도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Mallimaci et al. 2000,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카를릭 추기경이 주교회의 의장에 취임한 이래,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노력은 전체 가톨릭교회의 신뢰도와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던,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와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Esquivel 1999, 4).

IV. 가톨릭교회의 대응: 까리따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반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축이 까리따스의 활동이다. 까리따스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망을 구성하고 있다. 63개 교구, 1968개의 본당, 1403개의 공소와 선교센터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까리따스 산하에 2천개가 넘는 무료급식소가 있으며, 그밖에 유아, 가족, 고용 관련 223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활동하는 평신도 자원봉사자 수가 1999년 기준 2만 2천 400명, 2000년 기준 2만 5천명이 넘는다. 까리따스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27만 6천 세대(약 백만여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매일 1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Clarín*, 02 de junio de 1999). 또 모금액 규모로 보면 1999년 기준 287만 8028 페소에 이른다(*Clarín*, 16 de noviembre de 1999; 30 de abril de 2000).

까리따스는 전통적인 연례 모금(colecta annual)을 통하여 기본 경비를 마련한다. 매년 6월 사회복지주일 주일 미사에서 특별 헌금을 받고 또 본당과 학교 등에서는 그 주간 내내 기부를 받기도 한다.

96년 모금액은 1인당 5센트로 유럽 까리따스의 1인당 10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97년은 7센트, 99년 10센트로 늘어났다. 모금 총액을 보면, 97년 기준으로 250만 페소, 98년 기준 247만 페소이다. 이 외에도 매년 전화 캠페인(“Un Llamado de Navidad”)을 통해 사람당 5페소씩 기부를 받기도 한다.³⁾

이 기금들은 주로 무료 급식소, 직장 여성들의 아이들을 맡아 무료 급식까지 제공하는 탁아소, 아동보호소, 학교 지원과 청소년 복지, 직업 훈련, 마이크로기업을 위한 기술적 금융적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에 사용된다(*Clarín*, 29 de mayo de 1998; 02 de junio de 1999; 30 de abril de 2000).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꼬르도바 교구 까리따스는 시골 지역에서 꼬르도바 시내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오는 가난한 환자 가족을 위한 무료 숙박 시설(refugio nocturno)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숙박 시설은 16년 동안 5만5천명이 이용했다(*Clarín*, 27 de setiembre de 1999).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까리따스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1999년 대선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까리따스를 주정부 ‘가족과 인간 발전 위원회’와 통합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 입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한 경우이다(*Clarín*, 30 de septiembre de 1997). 까리따스의 이러한 위상은 교회 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1999년 까리따스 새 위원장 주교를 선임하면서, 예전처럼 주교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주교가 참여하는 주교총회에서 투표하였다. 주교 총회는 위원장 뿐 아니라 부위원장 주교도 투표로 선임했고, 동시에 까리따스 자문위원회(comisión asesora)를 새롭게 구성해 위원장단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했다(*Clarín*, 12 de noviembre de 1999).

까리따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의 복지활동을 담당해 왔으나,

3) 이 해에는 홍수 피해자 돕기 특별 헌금이 따로 있어, 연례 헌금 액수가 다소 저조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된 것은 1989년 경 인플레이션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로 인해 더욱 열악한 처지에 처한 가난한 이들의 삶에 교회가 주목하면서, 까리따스의 활동이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 이전과 사뭇 다르게 확장, 강화되면서부터이다.⁴⁾ 특히 메넬 정부 1기 후반에 들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화되면서, 그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더욱 더 확대해 왔다(*Clarín*, 29 de mayo de 1998).

그리고 라파엘 레이(Rafael Rey) 주교(Zárate y Campana 교구)가 위원장 주교를 맡으면서, 까리따스는 단순한 사회 구호 활동을 넘어, 실업과 가난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경제 모델과 정책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간다. 레이 주교는 가톨릭교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 특별헌금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는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1340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고,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경우 유아 1천 명 중 50명이 한 살 이전에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에만 2-6살 사이의 어린이 21.6%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역시 같은 지역의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도 일도 하지 못한 채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은퇴자의 85%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 이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 주교는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실업자, 잠재실업자, 저임금노동자, 빈부격차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한데, 정부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Clarín*, 02 de junio de 1999).

레이 주교는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 때문에 정부 당국과 곧잘 충돌한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가난의 상황에 대한 레이 주교의 발표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곧바로 반박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교회와 정부의 다른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이 격화된다. 정부의 주장

4) 까리따스 전국위원장 후안 데 세사리스(Juan de Césaris)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 그 열악한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이 우리에게 구원 요청을 했다. 그 때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택했는지, 아니면 가난한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가톨릭교회를 택했는지 알 수 없다”(Clarín, 08 de octubre de 2000).

인 즉 1989년 정권 인수 당시에 전체 인구 3천2백만 중 가난한 사람이 1천5백만 명이었으나, 메넴 정부 말기인 1999년으로 볼 때, 전체 인구 3천 6백만 명으로 늘었으나 가난한 사람은 9백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Clarín*, 05 de junio de 1999). 이에 대해 레이 주교는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죄는 현실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난을 숨기고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Clarín*, 04 de junio de 1999).

정부와의 이러한 알력 때문에 까리따스의 사업에 배정된 공적 자금의 전달이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레이 주교는 홍수 피해자들의 주택 마련과 수리를 위해, 정부가 작년 12월 4백만 페소를 제공하겠다고 카리타스를 비롯한 종교 사회 복지 단체들과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까지 그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Clarín*, 19 de julio de 1999). 레이 주교에 따르면, 차관 제공을 약속한 미주개발은행(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이 필요한 모든 수속을 마쳤고, 또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했는데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Clarín*, 22 de julio de 1999).

그러나 1999년 메넴이 물러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까리따스를 필두로 하는 가톨릭교회 조직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회정책 개발과 실행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입에서, 교회나 까리따스가 이미 갖고 있던 전국적인 망, 그리고 가난 극복 프로그램과 그 기금 운용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정직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힘입은 바 크다(Mallimaci et al. 2000, 15).

역시 99년에 레이 주교의 후임으로 까리따스의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호르헤 까사레토(Jorge Casaretto) 주교(Isidro 교구)는 까리따스가 사회적 위기에 대한 비판적인 구경꾼, 가난한 이들을 돕는 통로를 제공하는 단순한 협력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의 사회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정책은 가톨릭교회와 교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만이나 비판을 그 정책의 실질적인 대민 창구인 까리따스가 온통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구호 자금이 정치적 부패의 희생물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척도에 따라 자금 분배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Clarín*, 16 de noviembre de 1999).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교회가 특히 가난한 계층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교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져 나온 교회의 정부 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페르난도 델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은 까사레또 주교를 주교관으로 직접 방문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가의 사회 구호 활동이 가난한 사람들과 보다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교는 자문의 형태로 정부와 협력을 약속할 수 있으나, 공공 부조와 관련된 업무 수행으로 교회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Clarín*, 12 de julio de 2000). 사회 구호와 복지를 담당하는 메이히데(Graciela Fernández Meijide) 사회 발전(Desarrollo Social) 장관도 장관 지명을 받고, 무엇보다 먼저 까리따스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까리따스는 자동적인 협력 메카니즘을 거부하고, 사안별로 자문하겠다고 밝혔다(*Clarín*, 08 de octubre de 2000).

까리따스는 그 활동의 성격상 전통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일정한 협력이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정부의 가족 위원회(Consejo de la Familia)의 식량 배급에 참여하고 구호 프로그램에 협력해 왔다(*Clarín*, 30 de septiembre de 1997). 그러나 카톨릭 추기경이 주교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 정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메넴 정부의 내무 장관(Carlos Corach)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까리따스의 사업에 매달 30만 페소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당시 까리따스의 위원장 주교였던 라파엘 레이(Rafael Rey)주교는 지원 형태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다시 말해 주아르헨티나 주재 교황청 대사(Esteban Caselli)가 자신에게 전화해 정부 비판을 완화하고 정부와 대화하도록 요청한 직후에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까리따스 전국위원회도 이 지원이 까리따스의 구체적인 구호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레이 주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교는 까리따스가 정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겠으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구체적인 프로그램 통해서 할 것이고, 책상 밑으로 건네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Clarín*, 28 de julio de 1998).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들은 최근 가톨릭교회가 정치권력이나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변화의 표지로 해석되고 있다. 가톨릭 연구소인 누에바 띠에르라 연구소(Centro de Nueva Tierra)의 네스토르 보리(Néstor Borri) 소장은 까리따스의 이러한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까리따스는 기본적으로 이전과 같은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낸다. 가톨릭신자이기도 한 일반 대중들은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관, 즉 국가, 노동,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앞의 두 가지는 사라지고, 따라서 사제의 로만 칼라가 다시 권위를 갖게 되었다(*Clarín*, 28 de julio de 1998).

결국 9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이 도입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다른 한편으로 메넴 정부의 각종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면서,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는 정치권력과의 밀착 관계를 통해 시민사회 일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꾀했던 전통적인 네오끄리스탄당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자각하면서, 정치권력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이념과 실천이

라는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된다. 즉 이념의 차원에서는, 특히 카톨릭 의장을 축으로 한 주교회의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과 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형태로 비판적인 담론들을 생산해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가톨릭의 고유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구호 또는 복지 활동을 보다 더 확산하고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비판적 개입을 통해, 가톨릭교회는 과거 군사정권과의 밀착 등으로 상실한 사회적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 교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바티칸 당국이 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더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전통적으로 바티칸에 순종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아르헨티나 교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89년 이후,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들을 양산해내는 메넴 정부 1기 후반에 이르러 가난한 이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특히 대량 실업이 확산되면서, 이들이 가톨릭교회의 사회 구호 또는 복지 네트워크를 거의 유일한 출구로 찾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가톨릭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세 번째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비판적인 자각의 움직임이다. 알폰신 정부 하에서 군사독재의 청산 작업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교계가 과거 군사 정권과 밀착되어 저지른 각종 범죄들이 폭로되면서, 교회의 사회적 위신이나 신뢰가 크게 추락함에 따라 교회 내에서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비판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고, 특히 메넴 정권의 정치적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비판적인 논의가 교계 일반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오순절과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약진으로 가톨릭적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출구 없이 내몰린 가난한 이들이 찾는 곳은 가톨릭교회의 복지망만이 아니었다. 교의적인 한계에 묶여 있고, 수직적인 규율로 인해 그 움직인 둔한 가톨릭교회보다는, 소규모로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덜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여성의 참여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오순절과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오순절과 교회가 해당 빈민촌 전체 인구의 20%까지 장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Clarín*, 08 de octubre de 2000).

가톨릭교회는 오순절과 교회의 이러한 활동과 성장을 의식하면서, 까리따스의 운영 방식에 일정한 변화를 꾀한다. 즉 영리법인의 경영 기업을 도입, 흡수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원봉사자 일부를 유급 직원으로 전환해 전체 활동가의 7%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또한 기금 모금도 전통적인 방식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그에 따라 1997-1999년 기간 동안 기금 모금액이 매년 13% 증가하는 실적을 보인다(*Clarín*, 08 de octubre de 2000).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까리따스가 복음적 방식을 포기하고, 강력한 기업, 재정 지원 기관, 또는 자선 단체로 전략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V. 결론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는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리스판닷, 네오 그리스판닷 모델 하에 정치권력과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교회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교육, 성, 도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치권으로부터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이를 통한 사회 일반에 가톨릭적 가치나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모델로 인해, 군사 독재 정권들이 벌인 추악한 전쟁의 공범자로 전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톨릭교회의 정당성이나 사회적 신뢰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정 이양 이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치

권력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시노 추기경은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메넴 정부 1기하에서 정치권력과의 전통적인 관계 회복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량 실업과 빈곤 증가 등 각종 사회적 폐해로 드러나고, 각종 부패 사건과 연루됨에 따라, 정치권력 앞에서 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들은 1996년 카를릭 추기경이 주교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 점차 교회의 정책적 기조로 자리 잡아 간다. 이후 가톨릭 교회는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대량 실업과 빈곤 증가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늦추지 않고, 까리따스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빈곤층의 사회 구호와 복지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군사 독재와 메넴 1기 동안 상실했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당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높여 왔으나, 그러한 비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도덕주의적 관점이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교회의 사회 구호 또는 복지 활동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자아비판이 일고 있고, 이러한 구호나 복지활동을 넘어서서 가난과 배제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과 그에 바탕을 둔 정책대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구조가 낡는 사회적 폐해나 부작용을 뒤치다꺼리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 앞에서 그 희생자들의 편에 서서 비판적인 담론들을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들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군사 독재정권과의 밀착된 관계로 상실해 버린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일정 정도 회복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담론이나 실천의 차원에 있어 구조적인 접근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

준으로 끌어 올려, 개별적 또는 도덕주의적 접근과 일정한 균형을 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적 차원에서 까리따스에 집중된 관심을 기초공동체나 민중사목과 같은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 교회 내 여러 단체들에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rgentine Catholic Church had concentrated her institutional efforts on the diffusion of catholic values and ideas in the civil society through the intimate relation with the political powers. But wit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1980s, this model of church came to a crisis, specially by the exposure of the crimes the church had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is situation has sprouted a discussion about a new identity of the church in relation to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ese efforts for a new identity have been more consolidated by the disclosure of political corruptions of Menem government.

With the election of Karlic as president of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 the Catholic Church began to mold more concretely this new identity that maintain a distance from the political powers. Enjoying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the relation with State, the Catholic Church have paid attention to the reality of poors, who didn't discover the other exits except the catholic network of social assistance.

In this way, the Argentine Catholic Church, on the one hand, has developed a critical discourse against the neoliberal economic model and their social consequences and, on the other hand, has intervened practically in the reality of the poors through her network of social assistance, that is, *Cáritas*. These attitudes and practices of Catholic Church have evoked a great echo in the civil society, contributing

toward the recovering of her social legitimacy and credibility, disqualified by her crime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But this new relationship with State reveals certain limits. Her critical discourse still is remained in the traditional moralistic approach and her practices are concentrated in the social assist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the more systemic and consistent discourse, with an effort on the distribution of her attention, concentrated on *Cáritas*, for other catholic pastorals or movements.

Key Words: Argentina, Religion, Catholic Church, Economic Crisis, Neoliberalism / 아르헨티나, 종교, 가톨릭교회,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

논문투고일자: 2005. 01. 17

심사완료일자: 2005. 01. 24

게재확정일자: 2005. 02. 18

참고 문헌

- 김항섭(2003),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6, No. 2, pp. 125-167.
-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 Burity, Joanildo A.(1998), “Religião, Mercado e Política: Tolerância, Conformismo e Ativismo Religioso”, *VIII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22 a 25 de Setembro), São Paulo, pp. 1-25.
- Cáritas Argentina(2000), *Un Pueblo Pobre en un País Rico: Informe de la Pobreza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Cáritas Argentina.
- Caritas Internationalis(2003a), *The Globalization of Solidarity: 17th General Assembly*(7-12 July), Rome.
- _____ (2003b), *A Caritas Internationalis Handbook for Reflection and Action*, Rome: Istituto Salesiano PIO XI.
- CEHILA(1992), *500 Años de Cristianismo en Argentina*, Buenos Aires: Centro Nueva Tierra.
- _____ (1994), *Historia de la Iglesia en el Cono Sur: Argentina, Chile, Paragua y Uruguay*, Salamanca: Sígueme.
- Ciamari, Lila(1995), *Perón y la Iglesia Católica: Religión, Estado y Sociedad en la Argentina, 1943-1955*, Buenos Aires: Ariel.
- Cipriani, Roberto; Eleta, Paula y Nesti, Arnaldo(orgs.)(1997), *Identidade e Mudança na Religiosidade Latino-Americana*, Petrópolis: Ed. Vozes.
- Comisión Episcopal para el Apostolado de los Laicos(1989), *Renovación Carismática Catól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 Criterios Fundamentales*(Agosto).
- Comisión Permanente del Episcopado Argentino(1989), *Renovación Carismática Catól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 Lineamiento*

- Básicos*(3 de Agosto).
-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990), *Lineas Pastorales para la Nueva Evangelizacion*, Oficina del Libro.
- _____ (1994), *La Iglesia Catolica y la reforma constitucional*, Oficina del Libro.
- _____ (1995), *Caminando hacia el Tercer Milenio*, Oficina del Libro.
- _____ (1998a), *Carta pastoral sobre el Sosteenimiento de la Obra Evangelizadora de la Iglesia*, Oficina del Libro.
- _____ (1998b), *Compartir la multiforme Gracia de Dios*, Oficina del Libro de la CEA.
- _____ (1999), *Documento final de la 79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7 de abril).
- _____ (2000a), *Jesucristo, Señor de la historia: Documento final de la 79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3 de mayo).
- _____ (2000b), *Afrontar con grandeza nuestra situación actual: Documento final de la 80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1 de noviembre).
- _____ (2001a), *Hoy la Patria requiere algo inédito: Documento final de la 81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2 de mayo).
- _____ (2001b), *Carta al Pueblo de Dios: Documento final de la 82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7 de noviembre).
- _____ (2002a), *Testigos del diálogo: Documento final de la 83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27 de abril).
- _____ (2002b), *La Nación que queremos:*

- Documento de la Asamblea Plenaria Extraordi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28 de septiembre).
- _____ (2002c), *Para que el hombre le responda a Dios - En el Xº Aniversario del Catecismo de la Iglesia Católica: Documento final de la 84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5 de noviembre).
- _____ (2003a), *Navega mar adentro: Documento final de la 85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31 de mayo).
- _____ (2003b), *Ante los desafíos del ALCA: Documento final de la 86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5 de noviembre).
- Cook, Guillermo(1994), *New Face of the Church in Latin America*, New York: Orbis Books.
- Dussel, Enrique(ed.)(1992), *The Church in Latin America: 1492-1992*, New York: Orbis Books.
- Encuentro Continental de Pastoral Social-Cáritas en América(2002), *Visión y Misión: Conclusiones del I Congreso Continental de Pastoral Social-Cáritas en América*(5-8 de Marzo), Colombia.
- Esquivel, Juan(1999), “Los dilemas de la Iglesia Católica argentina a fines de siglo”, *IX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21 a 24 de Setembro), Rio de Janeiro, pp. 1-18.
- _____ (2000), “Pluralidad de perfiles en el Episcopado argentino: Un análisis a partir de los orígenes sociales y de las trayectorias eclesiósticas de los bispos”, *X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3 a 6 de Octubre), Buenos Aires, pp. 1-21.
- Fora, Mónica Elizabeth(1999), “Tragédias Missionárias: O Selvagem e a Religião, Catolicismo y Juventud en la Ciudad de La Plata: Identidad Religiosa y Grupos Juveniles”, *IX Jornadas sobre*

- Alternativas Religiosas na América Latina*(21 a 24 de Setembro), Rio de Janeiro, pp. 1-13.
- Gutiérrez, María Alicia(1998), “Economía, Política y Religión: Un Análisis de la Argentina de los 90”, *VIII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érica Latina*(22 a 25 de Setembro), São Paulo, pp.1-16.
- Gutiérrez, Tomás J.(comp.)(1996), *Protestantismo y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erú: CEHILA.
- Karlic, Estanislao Esteban(1997), “Homilía en la misa de apertura de la 74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1 de septiembre).
- Karlic, Estanislao Esteban(1999), “Homilía en la misa de apertura de la 77ª Asamblea Plenaria de la Conferencia Episcopal Argentina” (12 de abril).
- Mallimaci, Fortunato(1997), “Crise do Catolicismo e Crise de um Tipo de Catolicismo: Pluralismo e Diversidade no Catolicismo Argentino”, em Roberto Cipriani, Paula Eleta y Arnaldo Nesti(orgs.), *Identidade e Mudança na Religiosidade Latino-Americana*, Petrópolis: Ed. Vozes, pp. 217-250.
- _____ (1998), “Catolicismos en Sectores Populares ante el Quiebre del Estado de Bienestar”, *VIII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na América Latina*(22 a 25 de Setembro), São Paulo, pp. 1-14.
- _____ (미발표 논문), “Religión y Política Hoy: Catolicismo y Antiliberalismo: Un Debate Inconcluso, pp.1-19.
- Mallimaci, Fortunato et al.(2000), “Competencia y complementariedad: los vínculos entre lo político y lo religioso - un estudio del caso argentino”, *X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érica Latina*(3 a 6 de Octubre), Buenos Aires, pp. 1-21.
- Martin, J. P.(1992), *Movimiento de Sacerdotes para el Tercer Mundo:*

- Un Debate Argentino*, Buenos Aires: Guadalupe.
- Obispos del Noroeste Argentino(1999), *En el Año de Dios Padre: Mensaje de los Obispos del NOA*(4 de marzo).
- Parker, Cristián(1996), *Popular Religion & Modernization in Latin America: A Different Logic*, New York: Orbis Books.
- Rock, David(2002), “Racking Argentina”, *New Left Review*, No. 17(September–October), pp. 54–86.
- Soneira, Abelardo Jorge(1998), “La Renovación Carismática Católica: del Carisma a la institución”, *VIII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na América Latina*(22 a 25 de Setembro), São Paulo, pp. 1–13.
- _____ (2000), “Los Movimientos Eclesiales y la Iglesia en la Argentina: el caso de la Renovación Carismática”, *X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3 a 6 de Octubre), Buenos Aires, pp.1–21.
- Stefano, Roberto Di y Zanatta, Loris(2000), *Historia de la Iglesia Argentina*, Buenos Aires: Grijalbo Mondadori.
- Swindoll, Orville(1981), “Tiempos de Restauracion”, *Logos*, Buenos Aires.
- Wynarczyk, Hilario(1999), “Evangélicos y Política em la Argentina”, *IX Jornadas sobre Alternativas Religiosas en America Latina*(21 a 24 de Setembro), Rio de Janeiro, pp. 1–13.
- Yáñez, Humberto Miguel(comp.)(2003), *La Solidaridad como Excelência: VI Jornada de Reflexión Ético-Telógica*, Buenos Aires: San Bonito.
- Zanatta, Loris(1992), *Del Estado Liberal a la Nación Católica*, Bologna: Tese de Doutorado.

신문 자료

Clarín(años 1997–2003)

Diario Página(12 de junio de 1995)